

2025년 11월 26일

이 자료는 11월 28일(금) 조간부터
취급하여 주십시오.

통신/방송/인터넷매체는 11월 27일(목)
14:00시 이후부터 취급 가능

보도자료

한국은행 경남본부와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, 「지역균형성장, 경남의 현황과 과제」를 주제로 지역경제세미나 공동개최

-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11월 27일(목)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성장을 주제로 「지역균형성장, 경남의 현황과 과제」에 대한 지역경제세미나*를 개최하였음

* 개회사(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), 환영사(김정훈 한국은행 경남본부장), 축사(박완수 경남도지사)에 이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

-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산업연구원 서성민 부연구위원이 "경남혁신 도시의 성과 및 발전 방향"을 발표했으며,

두 번째 발표에서는 경남도청 산업정책과 박경훈 과장이 "경남의 균형성장을 위한 산업육성 정책 및 추진 방향"을 제시한 데 이어,

마지막 발표에서는 경남연구원 동진우 경제산업정책팀장이 "경남 경제의 성장경로 점검 및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시사점"을 통해 균형성장을 위한 경남지역의 과제를 제안

- 종합토론에서는 정원식 경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자 등이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

- 이날 세미나에는 경남도청을 비롯한 지자체, 유관기관, 기업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다수가 참가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

- 자세한 내용은 "붙임" 참조 -

(지역경제세미나 관련 사진 별도 송부 예정)

문의처 : 기획조사팀 이진섭 과장

Tel : (055) 260-5091 Fax : (055) 260-5099 E-mail : gyeongnam@bok.or.kr

"한국은행 경남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(<http://www.bok.or.kr> ⇒ 좌측상단 지역본부 ⇒ 경남본부)



한국은행 경남본부

(붙임)

주제발표 주요 내용

(발표1 : 경남혁신도시의 성과 및 발전 방향)

-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서성민 부연구위원 -

□ 진주시는 경남혁신도시 조성(2013년) 이후 인구가 늘고 고용이 확대되면서 동·서부 경남간 경제 불균형이 일부 완화*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, 기업실적의 개선 효과나 혁신도시 성과의 인접 지역(사천 등)으로의 파급효과 등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**

* 경남의 총생산(GRDP)에서 서부 경남의 비중 : 2012년 16.5% → 2021년 20.0%

** 합성대조법(synthetic control method)을 이용하여 진주시와 가장 유사한 가상의 도시를 설정한 후 공공기관 이전 및 경남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를 비교·분석

○ 진주시의 인구(34.1만명, 2023년)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약 4천여명 증가하였고 기업의 평균 고용 규모도 지식기반산업(연도별 +6~+31%)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, 사업체수·매출액 등 기업의 실적 개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○ 앞으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성장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내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함

아울러 민간기업 유치,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, 진주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정주여건 개선,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

(발표2 : 경남의 균형성장을 위한 산업육성 정책 및 추진 방향)

- 경남도청 산업정책과 박경훈 과장 -

□ 경남도는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측면에서 우주항공·방산·조선·원전·기계 등 경남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할 방침

- 완성형 수요기업(우주항공·방산·조선·자동차 등)의 생산성 향상, 기반형 수요기업(기계·로봇)의 디지털 제조플랫폼 구축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, 기술개발, 생산, 품질관리, 사후관리 등 제조 전주기에 AI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(AI Transformation)을 지원
-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 모빌리티, 차세대 에너지(SMR 및 수소)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,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산업별 발전수준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육성전략* 수립
 - *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산업(차세대원전·수소 등)은 특화전략으로, 산업간 융복합이 중요한 산업(AI·로봇·소재 등)은 확장전략 등으로 육성

(발표3 : 경남 경제의 성장경로 점검 및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시사점)
- 경남연구원 혁신성장본부 동진우 경제산업정책팀장 -

-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, 경남 지역은 전국 대비 R&D 투자뿐 아니라 물적자본(설비·건설) 투자가 부진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성장세도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
- 경남경제의 성장세 강화를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신규투자와 노후 산단*에 대한 재투자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긴급
 - *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디지털화, 스마트공장 전환, 전력설비 효율화 등
- 아울러 산업발전에 따른 기업의 성과가 경남지역의 소득 및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
 경남이 단순 제조업 생산기지에 머물지 않고 기획·금융(자금조달)·연구개발·투자·생산 등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